

커피 호황에 위기의 녹차, 웰빙+관광으로 다시 뚝다



보성군 회천면 하동마을 다원에서 최상품인 우전차를 만들기 위해 새순을 따는 모습. 녹차산업은 커피 수요 급증과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산에 밀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최대 위기에 처해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오스트리아 차 전문업체인 '하스&하스' 사장 부부가 2010년 4월 보성 녹차밭을 찾았다. 세계적 차 전문업체 오너가 보성까지 날아온 이유는 한국 여행을 다녀온 지인들부터 한국 녹차의 뛰어난 맛에 대한 얘기를 듣고 녹차의 본거지를 직접 눈으로 하기 위해서였다.

30여년간 세계 각국의 명차를 수입해 온 하스 부부는 '녹차수도' 보성에서 유기농 녹차 재배 현장을 확인한후 돌아가 그 해 9월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자사 판매장에 보성 녹차를 전시했다. 2개월 동안 계속된 전시행사에서 보성 녹차는 100g에 130만원(당시 840유로)에 팔려 나갔다.

보성 녹차의 전성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은 이제 과거가 됐다. 국내에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커피에 밀려 갈수록 수요가 줄고 있고 해외시장에서도 중국과 일본 차에 치이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성장하던 국내 녹차시장 규모는 2004년 2500억원에 정점으로 감소해 현재는 2000억원대를 밑돌고 있다. 반면 자고나면 새로 생기는 커피 전문점이 말해줄듯 커피는 커피믹스와 음료, 커피 전문점 등을 포함해 지난해 4조3700억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했다.

전남은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으로 보더라도

국내 최대의 녹차 산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남의 녹차 재배면적은 1613ha로 전국(3306ha)의 49%, 생산량도 989t으로 전국(2110t) 대비 47%를 점유하고 있다. 병해 피해로 지난해 생산량이 급감한 것을 감안해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전남은 그해 2291t을 생산해 전국 점유

률 63.9%까지 올라간다. 특히 보성은 지난해 1065ha의 녹차를 재배해 전남의 66.0%, 전국 대비 32.3%의 재배면적으로 녹차수도임을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농약 녹차파동이 발생한 2007년을 기준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크게 줄고 있다. 여기에 2009년부터 대체재인 커피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재배면적의 경우 전남은 2002년 1136ha에서

작보다 큰 셈이다. 수출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산에 밀리고 품질과 제품 다양성에서 일본산에 처하고 있다. 더구나 전남은 국내 녹차의 절반 가량을 생산하면서도 수출물량에 있어서는 미미해 수출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전남의 녹차 수출은 지난해 11.1t에 35만4000달러로 전국대비 3.5%와 21%에 불과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아세안 FTA가 발효

된 2007년 6월 이후 전남의 녹차 수출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수출액에서 전남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2006년까지 평균 3.8%였으나 2007년~2011년에는 평균 21.8%로 크게 상승했다. 한·아세안 FTA로 녹차 관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앞으로 수출 증가폭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나해부터 한-EU, 한-미 FTA가 발효된데 이어 한-중 FTA까지 발효되면 전남 녹차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최근 전남 대표 농수산물 20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내고 녹차의 성장 가능성이 큰 품목으로 FTA시대에도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했다.

배달후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국내·외 다양한 원인이 복합해 녹차산업 성장에 후퇴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웰빙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크다"며 "중국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발효차를 개발하고 보성군이 추진중인 것처럼 대규모 차 체험장을 조성해 녹차 생산 및 제조에다 관광을 더한 6차 복합산업으로 발전시킨다면 수출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한국 제다

'설록차'로 녹차 대중화 선도
美 현지법인 설립 마케팅 주력
올해 16만달러 수출 예상

광주시 동구 소태동에 본사를 둔 한국제다(대표 서양원)는 사라져 가던 한국 전통녹차의 발흥과 대중화를 이끌어 온 기업이다. 서 대표는 1951년 회사 설립이후 전국 200여곳의 차나무 자생지를 찾아 다니며 야생차를 발굴했다.

이를 바탕으로 1957년 녹차와 발효차를 제조했으며 1970년대부터는 명맥이 끊긴 우리나라 반 발효차인 황차와 말차(가루차)를 최초로 생산해 대중화시켰다. 커피에 밀려 갔어다 고사위기에 처한 녹차 산업을 다시 일으킨 것도 한국제다다.

1970년대 전남도는 보성지역에 다원을 조성하도록 장려해 480ha를 조성했는데 정작 7년후 차 생산기에 접어들자 커피문화에 밀려 대다수 업체들이 찾아 수매를 외면했다. 이때 한국제다가 나서 재배농가와 10년 수매계약을 맺어 안정적인 공급처를 제공함으로써 전통녹차의 맥을 이었다.

1979년에는 한남체인과 제휴해 '신록차'라는 이름의 녹차를 내놓았고 1980년에는 국내 최대 차 제조업체인 (주)태평양을 차 산업으로 이끌어 '설록차'라는 브랜드로 녹차 대중화를 이끌었다.

녹차의 생산·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문화 보급에도 앞장서 1997년 광주 무등산 자락에 '운차문화관'을 세우고 다도 강연이나 세미나를 위해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서 대표는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황차와 말차 부문에서는 전국 최초로 '전통식품 명인'에 선정됐다.

한국제다는 장성·해남·보성에 10여만평의 다원(茶園)을 가지고 있다. 차의 특성상 최소 50km이상 떨어진 곳에서 생산된 차를 혼합해야 맛의 변화가 없고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데 대규모 다원으로는 최북단에 위치한 장성다원과 해남다원이 이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10여년전부터는 매년 3회이상 해외 박람회 참가하고 2005년 미국 LA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수출에도 적극 나서 2010년 10만달러의 수출고를 올렸고 올해는 16만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서민수(43) 한국제다 기획실장은 "올해 6월에 세계 최대 차 박람회인 '미국 라스베이거스 차 박람회'에서 상을 수상했다"며 "우리나라 녹차산업과 역사를 같이해 온 만큼 최근의 커피열풍에 밀린 녹차의 부활에도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지난 달 1~3일 열린 '2012 미국 라스베이거스 차 박람회'의 한국제다 부스.

KF 한국농어촌공사 후원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아리랑하우스의 여름특선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역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입니다!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출플러스 건너편)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